

중생은 욕심의 장벽에 가로막혀 극락세계나 천당세계가 보이지 않고 항상 괴로운 일에 허덕이게 됩니다. 한마음으로 밝혀주세요.



-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제844호 2011년 7월 13일 수요일 (음력 6월 13일 · 불기 2555년 · 주간)



백두산 정기 받으세요 무등산 중심사가 운영하는 대원장학회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백두산 순례를 6월 17~21일 까지 진행했다. 정상에 오른 청소년들의 표정이 백두산 정기를 받은 덕분인지 희망에 가득차 있다. <관련기사 5면> 글·사진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가 없어진다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인촌로길'로 불릴 뻔 했던 '개운사길'은 되찾았지만, 뒤늦게 성복구가 '흥천사길'을 '아리랑길'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개편 작업에 의해 화계사길, 도선사길, 보문로 등 지명이 속속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 않는다. 특히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에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도로명 변경으로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원상회복도 어렵게 해놓았다.

명은 물론 전통 지명이 새 주소에서 사라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며 "총무원은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MB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시행은 (불교식) 고유 지명에 대한 대량삭살" "서울시 봉현 발언과 지도에서 사찰 없애기의 결정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명진 스님(前 봉은사 주지)과 함께 하는 수행모임 단지불회는 7월 7일 성명서를 통해 "MB정부가 효율성만을 따져 기존의 주소를 새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면 불교지명을 날릴이 찾아 없애버린 것은 지도에서 사찰명 없애기처럼 불교 죽이기의 입장이 한 치도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기불회는 "불교식 주소가 말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에서 '특정종교시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불교와 200년 남짓한 개신교를 단순 비교해서 종교와 관련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불교멸망을 쓰지 말라는 지침과 다르

사무처장 해일 스님은 "정보가 너무 없었다. 이제는 2년간 새주소 시행이 유보된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관건이다"라며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불교식 고유 지명이 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얼마나 사라졌는지 현황 파악조차 안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식 지명을 연주해 온 박호석 법사(前 농협대 교수)는 최근 조계종과 본지 등에 사찰 지명 위기에 처한 불교식 지명 100여 곳을 열거했다.

시행 전부터 '자부담' 딜레마에 빠진 승려복지

10월 의료·요양 분야 시행... 보완 필요

'승려복지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 운용 및 집행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은 '승려복지법'을 10월부터 시행, 65세 이상의 무소득·무수입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공표된 승려복지법에는 수행연금, 의료급여, 요양비용 보장이 중점적으로 포함돼 있다.

제기되고 있다. 올해 의료·요양비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 10억이 조계종의 예산 구조상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은 "복지는 특성상 증액만 있을 뿐 금액이 없다. 적은 혜택이라도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은 확보해도 3년 뒤 승려복지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수행연금 시행은 또 보류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종단은 자부담이 실현되면 현 구조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단은 9월 경 모금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종단 수익사업 중 일부의 승려복지에 투입도 예정했다. 종단은 승려노후복지의 완성과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자부담을 승려복지제도 시행 첫 해부터 시행할 경우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잠정 보류했다. 종단 예산으로 의료와 요양 분야 지원을 시행하면서 스님들로부터 승려복지 제도의 장점과 필요성을 이해시킨 뒤 자부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종단은 이 밖에도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의 복지를 분담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의 최우선은 자부담이다. 자부담과 종단 수익사업, 모금, 재가불자의 제도적 동참 등이 실현되면 재원마련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행연금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3년 뒤 시행할 예정이다. 수행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29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3년 동안은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3년 안에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행연금 시행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상호 사무국장도 "승려복지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연금 지급을 보류할 경우 수행연금 시행 자체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종단의 이런 방안을 놓고, 무리한 복지제도 시행보다는 현실에 맞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출·재가의 역할은?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불교총회를 위한 7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기가 특징,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BBS 사장후보에 선상신·이채원 씨

공석 중인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선상신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와 이채원 전 강릉MBC 사장이 최종 추천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7월 6일 불교방송 사장 후보자 명단 9명 중 4명에 대한 면접 심사

후 불교방송 공채 1기 출신인 선상신 이사와 불교문화 프로그램 편성 등에 노력한 이채원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진흥원은 두 명의 최종 후보자를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이사회에 공식 추천했다. 조동섭 기자

BBS, 이번엔 노조에 보복성 인사

노조위원장 지방사 전보 밀린 임금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어온 불교방송(사장 직무대행 김영일)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본사 복직할 노조위원장을 또다시 지방사로 전보 발령했다.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장용진)은 7월 5일 보도자료에서 "사측이 1일 공문을 통해 장용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춘천지사로 전보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자 파괴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조동섭 기자

844호 CONTENTS

참회하면 징계 맞는다?	2
상반기 주목받은 사찰·조계사	3
중심사 대원장학회 동북아 기행	5
기획·승려복지 진단	7
특집·수륙대제	11
티베트 불교 특집	13~15
자비의 미얀마 돕기	22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아름다운 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인동용 LED전구)